

깨달음의 길은 고통을 통한 자기 정화

아제아제 바라아제

한승원 | 문이당 | 1만8000원



삶의 의지와 그에 따르는 고통의 체계는 자기정화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연꽃이 시궁창 같은 진흙 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아름답게 필 수 있듯이, 인간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도 그러하다는 것.

한강 열풍이 가시지 않은 지금, 한승원 작가의 대표작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개정판이 이달 재출간됐다. 한국 문단의 거목 한승원 작가는 이달 들어서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아버지’로 더 유명했을 것이다. 1939년 장흥에서 태어난 그는 1968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서 ‘목선’으로 등단된 뒤 꾸준히 작품활동을 이어가며 수많은 문학상을 휩쓸었다. 한강이 대한민국 문학의 새 역사를 쓰기 전 그의 글들은 어쩌면 ‘한승원’이라는 화수분이 존재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1985년 첫선을 보인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바 있는 동명의 영화 원작이기도 하다. 초월적인 이상 세계를 쫓는 진성과 파계하고



한승원 작가.

맨몸으로 세속을 떠도는 청화(순녀), 두 여승의 삶을 통해 자유인의 길을 일깨워 주는 대표적인 구도 소설이다.

청정암 절의 여승 진성과 같은 절에서 행자 생활을 하는 순녀는 은선 스님의 남다른 보살핌을 받아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임에도 아직 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순녀는 남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학교 선생 현종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평생 그의 곁에 붙어 있겠다고 결심하지만, 방학이 끝난 후 학교에는 이들을 향한 헛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결국 현종 선생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는 순녀의 가슴에 깊고 큰 구멍이 패게 만든다.

진성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오라는 은선 스님의 뜻에 따라 절을 떠나게 된다. 그러나 대학 생활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하는 진성은 은선 스님이 있는 청정암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우중남이라는 남학생이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종교적 믿음을 동요 시키지만, 그가 방학 때 청정암으로 돌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진성이 만행에서 돌아왔을 때 은선 스님은 중생들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함께하지 않은 것을 꾸짖는다. 진성은 은선 스님이 기다린 것이 자신이 아니라 속세를 해매고 다니는 순녀임을 깨닫고 크게 실망한다.

진여의 땅으로 가자는 뜻을 지닌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상적 삶에의 회귀로 이해된다. 작가는 사랑과 자기 투사의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1985년 5월 초판에서 그는 원래 제목으로 생각해 놓았던 ‘비구니’가 ‘아제아제 바라아제’로 바뀌게 된 배경과 등장인물들을 통한 독자들의 여파를 격

정하는 한편 공감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는 “소설은 핏빛 생명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애육과 환혹, 미망 속을 방황하는 인물들의 몸부림과 고뇌하는 모습을 심도있게 다뤘다. 순녀라는 인물을 통해 애육의 허무함과 미망과 방황을 극복하는 과정에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순녀가 미망, 방황, 허무를 극복해 내는 문제는 나와 당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모두의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정의하는 자유인은 깨달음의 길을 열어 해탈한 사람을 의미한다.

격동과 혼란이 끊이지 않는 정세 속에서 많은 자유인의 등장은 자연과 세상의 근원을 되돌아보는 토양이 될 것이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팩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저문다…편파 중독외교 시험대

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는가

존 J. 미어샤이머, 스티븐 M. 월트 | CRETA | 2만4000원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문화·국제정세 등 각 분야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으로 전 세계를 주물렀다.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등에 업고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자유’의 나라로도 손꼽힌다. 하지만 이런 미국도 ‘이스라엘 로비’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직격하는 책이 출간됐다.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충돌이 격화되고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다. 국제정치학자 존 J. 미어샤이머와 동맹이론의 대가 스티븐 M. 월트가 공동 저술한 작품은 미국의 편파적인 중동 정책이 자국에 전략적 재앙을 안긴 것은 물론 동맹국들을 위협에 빠뜨렸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을 예외적으로 지원해 논란을 가중시키는 ‘이중 충성’도 문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하마스와의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미국은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로 전쟁을 방관하고 있다고 설파한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일방적인 군사적 행동이 미국에 이익이 없다며 외교 정책에 대한 경각심을 요구한다.

미국은 과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냉전이 종식된 지 30년이 훌쩍 지난 현재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굳건하다. 저자들은 전략적 이익도, 도덕적 당위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제한적인 지원을 지속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엘리트 계층·로비의 힘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무마되고 만다. 로비는 미국 외교 정책은 물론 행정부 등 여러 부처에 영향을 끼친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를 지속 거부하고 중동을 상대로 군사적 공격을 강행하고 있는 지금 필요한 것은 로비의 영향에 대한 솔직하고 냉철한 토론이다. 공개적 논쟁과 광범위한 미디어 활동이 이뤄질 때, 비로소 미국-이스라엘 관계의 문제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박찬 기자



조선 후기 개혁사상의 원류 ‘반계수록’…현대어 번역으로 만난다

반계수록 1: 토지제도

유형원(반계) | 창비 | 4만2000원



“토지는 천하의 대본이다.” 영조를 감동시키고 정약용의 인생을 바꿨던 조선 실학 최초의 고전 ‘반계수록’ 현대어 번역본이 출간됐다.

다. 실학을 태동시킨 고전 ‘반계수록’ 유일한 시판본으로 원문 26권 중 토지제도를 다룬 1~8권을 묶어 ‘토지제도’라는 부제와 함께 제타생했다. 반계 선생은 평생을 전복 부안 우반동에 거주하며 학문과 저술에 전념했던 실학자다. 조선 후기를 찬란히 수놓았던 그의 작품은 성호 이익

과 다산 정약용 등으로 이어지는 중농학과 실학사상의 원천이 됐다. 토지, 교육·선발, 관직, 녹봉, 군사 등 전 영역에 걸친 국가제도를 설계한 이 책은 고금을 아우르는 방대한 참고자료와 사례를 제시했다. 실제 제도 운용까지 세세하게 고민한 구성과 서술이 후대의 지성들까지 매료시킨다.

‘반계수록’ 번역본은 수년에 걸친 강독·연구·번역으로 인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윝긴이 임형택씨는 이 ‘고설(古說)’을 조선 실학을 관통하는 ‘상고주의(옛 것을 숭상하는 주의)’로 해석했다. ‘근대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활용되는 이 말을 통해 역자가 읽어내는 것은, 실학의 개혁은 동아시아 유교사회가 공유했던 고대의

이상적인 국가를 목표로 삼았다는 점이다. ‘옛날의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기 위한 개혁에서 출발한 실학사상은 성리학의 사변주의에 대한 도전(다산 정약용)으로 이어지고 종래에는 상고주의 자체에 대한 재고(해강 최한기)로까지 연결됐다.

조선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기존의 관성적인 제도를 바꾸고, 사회와 제도를 살필 것을 주문하기 위해 써 내려간 불후의 역작. 기존 성리학이 군주와 사대부의 ‘수신’에 무게를 두고 성학과 도학에 전착했던 것과 달리, 반계는 평생을 걸쳐 경제학의 중요성을 입증한다.

‘실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현재, 조선 후기 실학의 개혁적 성격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

박찬 기자

어느날내안의아이가정말괜찮냐고물었다

스테파니슈탈 | 위즈덤하우스 | 1만9800원

심리학 분야 최장기 베스트셀러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어느 날 내 안의 아이가 정말 괜찮냐고 물었다’가 국내에 출간됐다.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책의 저자인 슈테파니 슈탈은 내면에 여전히 남아 있는 아이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어른들을 책을 통해 치유한다.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단단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 아이’를 발견하고 돌봐줘야 한다고 설명하며 ‘내면 아이’를 태양 아이(행복한 내면 아이), 그림자 아이(상처받은 내면 아이)로 구분하고 평온한 일상을 방해하는 그림자 아이를 치유하고 빛나는 태양아이를 발견하는 법을 알려준다.



보통의 분노

김병후 | 애플북스 | 1만7800원

분노는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부정적 감정도 우리 삶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김병후 저자는 9년 만에 돌아온 신작에서 그는 ‘감정의 급발진’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올바른 분노 사용법을 제시한다. 분노의 정체부터 공격 분노로 다뤄야 할 사회 문제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분노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다. 대처 능력과 심리적 상처 회복 등으로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서 건강한 분노가 제대로 작동되는 세상 만들기. 이를 위해 분노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은 이 같은 목표를 위한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쓰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정희정 외 6명 | 최고북스 | 1만6800원

7명의 새내기 작가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낸 책이다. 우연히 책방에 방문해서 글쓰기를 배우고, 독서 모임에 참가하는 등 각기 다른 계기로 글쓰기를 시작한 이들은 글을 쓰면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꿈을 재발견하기도 한다.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부러워 언젠가 그들처럼 되길 희망했던 7명의 저자들은 지금, 이 순간 ‘사람은 꿈을 꾸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다. 단 한 줄에서 시작한 글쓰기가 한 장이 되고 어느새 원고가 된다. 쓰기 시작하면 분명 당신의 인생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할 거란 메시지가 담긴 신간.

